아름다운 이야기



77th



THE ARUMDAUN STORY
2021.7. VOL.77

특집 12

춘천시 퇴계동
해솔직업사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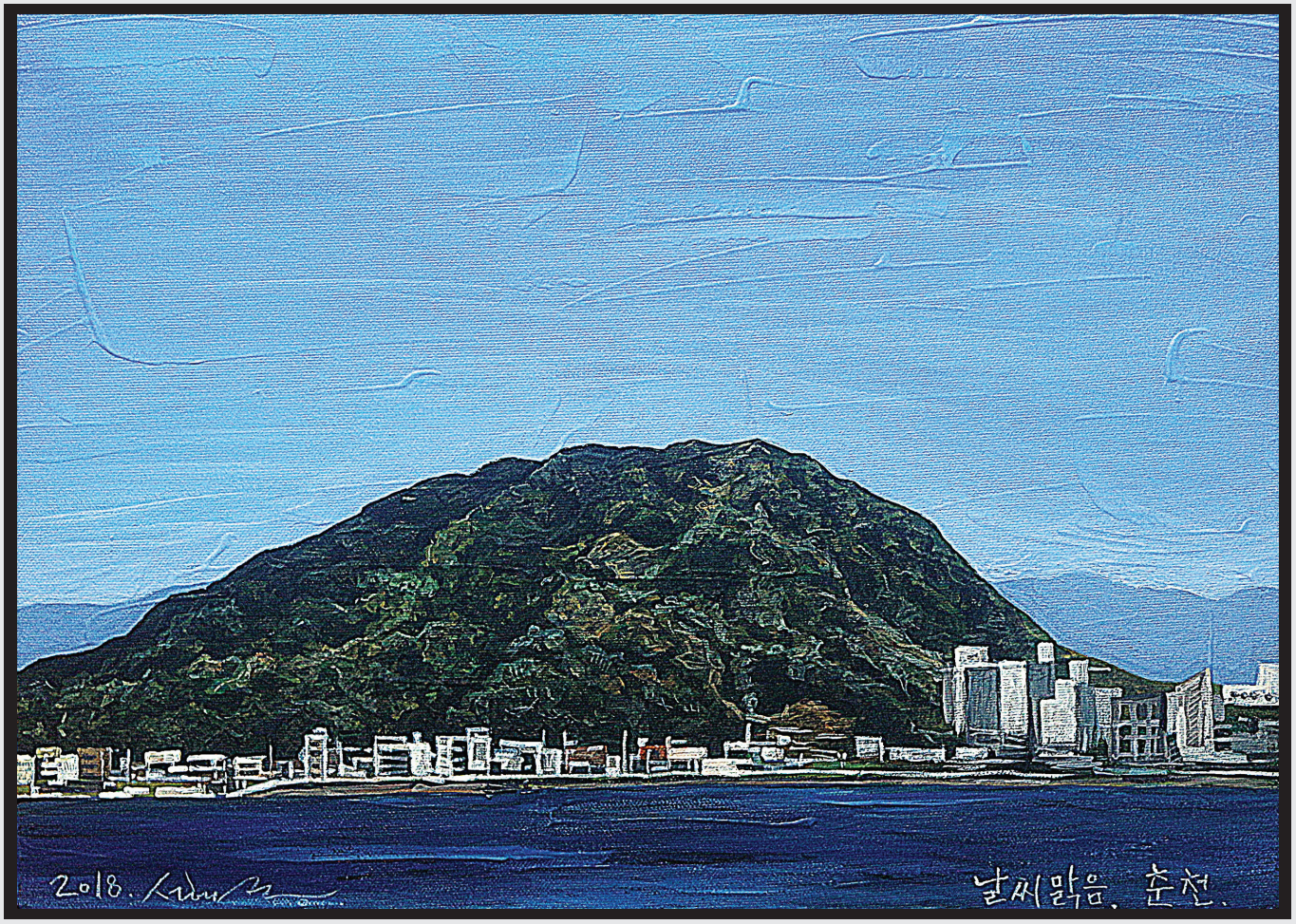
특집 20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어부의 눈 04
교구이야기 06
특집 [해솔직업사관학교] 12
추천도서 15
디아코니아 16
신앙에세이 [홈런~~] 18
특집[청소년문화의집] 20
연재[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22
기고[요리로 소통하며...] 24
연재[라떼파파] 26
기고[최영이 작가] 27
환경주일 기념예배와 행사 30
동부소식 32





〈 날씨맑음. 춘천. 아크릴 〉



서현종 (Seo Hyun Jong)

프로필(이력)

- 강원대학교 예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졸업
- 2016 "치타델레를 찾아서"
- 2017 개인초대전 "처음 뜨는 달"
- 2018 "봄 봄"
- 2019 "춘천 Blues" - 엄마의 꽃밭
- 2020 "청춘천"
- 2020 춘천생명의 숲 창립 22주년 초대전
- 2021 "Winter into Spring" 예담 갤러리 초대전

춘천시 춘천로 213번길 15-15
zigum02@naver.com



잘못된 편견

정태기 목사님이 상담치료원에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살던 신안군 앞바다에는 깨진 그릇이 즐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 배가 지나가다가 폭풍으로 인해 좌초되어 선원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배 안에 있던 그릇들이 폭풍과 해류로 인해 해안가로 밀려왔습니다. 이 그릇들을 집에 갖고 오면 억울하게 죽은 선원들의 혼령이 귀신이 되어 그 그릇에 붙어서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려온 그 다음 날은 어른들이 바닷가로 나와 떠밀려온 그릇들을 깼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집에 그릇들을 주워 올까 걱정되어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한 학생이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해안가에 놀러 갔다가 그릇을 하나 발견하여 집에 가져와 개 밥그릇으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해 여름, 그 집에 친척이 놀러 왔다가 그릇을 보고는 하도 신기하여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니 뭐하러 개 밥그릇을 달라고 하냐"며 그 친척에게 주었습니다. 그 친척은 학교 교사였는데 아무래도 그릇이 특이하여 감정을 의뢰합니다. 2개월 반이 지나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1973년인 그 당시 서울 강남에 아파트 개발 붐이 불어서 강남의 50평의 고급 아파트가 2,000만원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릇의 감정가가 3억 5천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갑자기 목포 섬에 군함 4척이 정박하여 포위하고 아무도 해안가에 못 들어가게 하고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1368년 5월 중국 송나라 때에 일본으로 그릇 2만 점을 갖고 가던 배가 그만 가라앉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폭풍을 만나면 하나씩 마을 해안으로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

던 미신에 대한 생각과 편견 때문에 그 그릇들을 깬 것입니다. 보물이며 보석인 줄 모르고 깬 것입니다. 잘못된 편견이 이처럼 귀한 보석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어촌 마을 벳세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벳세다는 '어부들의 집'이란 뜻으로 물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다가와 그를 불렀을 때, 빌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그 후 빌립은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은 늘 성서를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일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성경 어디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고 했냐?"며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사람들은 지역적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인구 150명의 30여 가구가 사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교양이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나다나엘 역시 나사렛과 비슷한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습니다. 편견은 다른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와 보라'는 빌립의 요청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다가오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자 그는 "어떻게 나를 압니까?"라 말하며 놀랍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주님의 말은 "네가 늘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구나."란 뜻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인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 속에 그가 아직 종교적 편견과 메시아사상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집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예언했습니다(삼하 7:8-16)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평안을 누린다는 기대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강력한 로마에 대항할 정치, 군사적으로 강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작고 천한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다나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에게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의 집에 가는 길에 한밤중에 꿈 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봅니다. 이를 통해 하늘과 맞닿은 하나님의 높은 어좌에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보좌 앞에 앉을 백성 곧 선민사상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높은 어좌에 있는 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한 '더 큰 일'은 그 인자의 부름을 통해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다나엘을 새창조 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 편견이 깨지고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편견을 깨뜨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세상을 고치고 섬기고 운영해 나가심에 동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글 김한호 목사
춘천동부교회 위임목사
서울장신대 겸임교수

큰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길...

생애 가장 위대하고 값진 결단을 한 대은아!
너의 입교를 축복하고 축하해!

"어머니! 대은이가 5월 9일 주일에 입교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강성호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엄마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라 교회 지붕을 뚫고 솟아오를 뻔 했지 뭐니? 그와 동시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동부교회가 떠나가라 크게 외치고 싶은 것을 꾹 참느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었단다. 대은이의 입교소식은 엄마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와우!!
대은이가 태어났을 때 너의 맑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서, 네가 비록 아기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유아세례를 통해 부모의 신앙고백으로 알려주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 새 늠름하게 자라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엄마의 마음 속이 폭풍 같은 감동으로 벅차오르는구나!



엄마가 입교식에서 읽어주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은이가 아기였을 때부터 열심히 외웠던 말씀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한권을 한 절로 요약하면 이 말씀 한절이 된다고 엄마의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며 외우라고 하셨던, 수 천만번을 외우고 가슴에 새겨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말씀이란다.

대은이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그래서 대은이의 이름 뜻처럼 큰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길 엄마는 매 순간 기도하고 있어.

자! 이제부터 대은이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느끼는 놀라운 사건들을 계속 만나게 될 거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에베소서 2:8)"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큰 은혜란다.

대은이가 사춘기를 보내면서 종종 "엄마! 예수님은 실제로 계셨었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게 맞아요?" 등등의 질문을 했을 때 엄마는 대은이가 왜 저렇게 당연한 것을 묻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엄마도 어렸을 때 대은이와 똑같은 궁금증이 있었던 기억이 새삼 떠오르는 거야! 그때 엄마도 엄마의 아버지 어머니께 동일하게 여쭤보았었어. 그러면 대은이의 할아버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8:32)" 라는 말씀을 읽어 주시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 할머니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 날거야! 기대해!" 라고 말씀해 주셨지.

그런데 엄마가 스무 살 때 영어 학원을 가려고 건널목을 건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엄마에게 달려들더니 "꽝" 하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어. 그 때 누군가 엄마를 폭 감싸 안아서 바닥에 내려놓는 느낌을 받았어. 엄마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셨던 아저씨도 넘어지기는 하셨는데 괜찮으셨어. 아저씨가 쓰고 계셨던 오토바이 헬멧만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나 있었지. 굉장히 세게 부딪쳤다고 여겨졌는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웅성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너무 다행이었어. 아저씨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시며 "학생, 정말 안 다쳤어? 십년 감수했네!" 하며 엄마의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셨지. 그 엄마의 뒤에서 누군가 손을 탁탁 털고나서 엄마에게 눈을 찡긋 윙크를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건 비밀인데 너에게만 이야기해 주는거다. 엄마가 확실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된 계기가 되었어.

지금 엄마는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 분의 구원에 감격하며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기도하잖아? 너도 예수님과의 경험들이 생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과 친해질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뿐인 생명을 주고 대은이를 구원하셨어! 이것이 바로 진리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로마서 5:8)"

예수님께서 대은이의 어떤 소중한 비밀을 공유하실지 무척 기대된다.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대은이가 되렴.

대은이가 입교를 하고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니 몇 가지 당부할 것들이 있어.

첫째, 예배자로 살아갈 것

둘째, 십일조를 꼭 할 것

셋째, 매일 성경말씀을 꼭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

넷째, 대은이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 것

다섯째, 항상 만남의 축복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성수는 물론이고 항상 예배자로 살면 더욱 큰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란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대은이가 되길 기도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한복음 4:23)"

십일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증거물이란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신앙고백이고 아버지로 높여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도리라고 할 수 있어.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잠언 3장 9절)"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우리 영혼의 양식이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디모데후서 3:16)"

날마다 호흡하고 밥을 먹듯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대은이의 영이 날로 강건해질거야. 기도는 호흡, 말씀은 양식이란다. 강건한 영으로 기쁨의 찬양이 절로 나오길 기도한다.

대은이가 태어났을 때 부터 목사님들께서, 교회의 어른들께서, 선생님들께서, 대은이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몰라. 대은이는 그 은혜를 꼭 보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할머니께서는 대은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시니 대은이도 복된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길 부탁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입교를 축하하는 인사와 함께 신앙생활의 즐거운 훈련이 대은이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주길 소망하고, 대은이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길 쉬지 않고 기도할게.

언제나 사랑한다. 엄마가!!

글 1교구 김현주 집사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네시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 종교가 없다는 건 말도 안되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갖고 있고, 신분증에 종교가 쓰여져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면,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 강제적 아침형 인간이 되는 나라.

국민의 87%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는 곳곳에 이슬람 예배당, 기도당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데, 예배당 건물 지붕 외곽에 2개에서 4개의 대형 스피커가 달려있습니다. 하루에 5번 기도 소리가 전국 모든 곳에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어느 정도인가하면 옆에서 확성기로 이야기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들의 첫 기도는 새벽 4시~4시30분쯤에 시작되는데요. 덕분에 매일 4시 반에 드리는 교회 새벽예배에 잘 일어나 갈 수 있었습니다!*^^* 땡큐~!

■ 이슬람 최대의 명절 '르바란'과 금식 기간 '라마단'

무슬림들은 매년 르바란이라는 큰 명절을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금식을 합니다. 원칙은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매일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약 새벽 4시 30분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금식을 합니다. 무슬림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금식 기간은 단순히 밥만 굶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죄도 함께 비워내는 정결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새벽 3시쯤 사람들이 일어나서 금식을 대비하여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나는 시간에 길거리, TV, 라디오에 금식이 끝났음을 알리는 기도소리가 울려 퍼지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 미리 사둔 도시락을 길에서 먹고, 또 가족 단위로 금식 종료 전에 식당에서 주문을 해두고 기다리다가 기도 소리와 함께 만찬을 즐깁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4교구의 조남현, 염예지 부부입니다. 어떤 말로 글을 시작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적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적어보았습니다. 사실 더 많이 적고 싶었는데, 분량 관계로 세 가지만 소개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기 3년 전부터 남편은 자카르타에 있는 특전사 유도 코치로 군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2개월 후에 귀국하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 되어버린거죠. 남편이 자카르타에서 31살을 맞이하던 해에 어머님께서 "외국인 며느리도 괜찮으니, 데리고 와라."라고 하셨답니다. 사실 실제로 해외에 있는 많은 청년이 결혼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저희 남편도 진지하게 귀국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이 섬기던 한인교회의 부설 유치원 교사로 가게 된 것이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갔던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통해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강압(?)으로 대학 졸업 후 캄보디아로 1년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다시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교회 부설 유치원이었습니다. 저도 3년만 있다 오려고 했는데, 새벽 예배에 매일 제 뒤통수를 보며 기도하던 남편을 청년부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면 문화의 장벽이, 편견의 벽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아무리 인도네시아어를 잘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한다 해도 저희는 외국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했습니다. 그 땅에서 저희가 할 일은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지의 이야기를 접할 때는 건물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들이 빛나 보이지만, 제가 경험한 선교는 그 속에 '살아냄'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진짜 친구가 되는 것,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 말입니다.

남편이 인도네시아에서 특전사 코치로 시작하여 자카르타팀, 대표팀의 외국인 코치로 가기 까지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선수들과 함께 합숙하며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숙소에서 생활했는데요. 시합을 앞둔 선수들이 많이 먹고 운동해야 할 때,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 등 종교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선수들은 예수를 믿는 외국인 코치에게 처음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지만, 모든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는 남편을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부상을 입게 되면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말로 기도했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선수들은 '예수'라는 말을 알아들었을텐데, 함께 '아멘'이라 했습니다.

저는 항상 현지인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토

요일에는 한글학교에서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한글학교 봉사는 즐거웠지만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무슬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한 선교사님께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전도법 세미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세미나는 이틀 동안 전도법을 배우고 셋째 날에는 실제로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일정이었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3명의 사람을 만났는데요. 3명 모두 처음엔 한국인이 말을 걸어오니 좋아하다가도,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갈 즈음엔 모두 인상을 쓰며 "그만 듣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참혹한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저의 타겟은 20대 초반의 무슬림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친분이 있으니 중간에 끊지는 않더라고요.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에 대해 알려주어서 고맙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너의 확신이 부럽다. 그리고 나도 너의 말처럼 나중에 너와 함께 천국에서 살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를 받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상하게도 전도를 또 실패(?)한 그날 저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친구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글에서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전 그곳에서의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올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반짝거리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춘천의 유도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요. 이제야 좀 살만해지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교회, 직장을 다 두고 저에게는 낯선 곳으로 가자고 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춘천에 왔고, 춘천동부교회에 오게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적응 중이지만,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저의 몫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를 춘천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스펙타클한 계획을 또 다시 기대하며, 그 계획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글 1교구 조남현,염예지 성도





엄마나무

나무껍질은 진딧물이 뒤덮어
불에 그을린 듯 까맣게 변했다.
6년 전 어머니가 심어주신 모과나무다.
약을 칠 시기를 놓쳐 나무가 그 모양이 됐다.
그 모습이 '온몸에 이가 들끓는 것'이라는 말에
며칠을 잠을 설쳤다.
나무의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여섯 해를 시난고난
투병 중인 어머니 생각 때문이었다.
지친 삶에 나무가 무슨 위안이 되겠을까 만은
껍질이 벗겨지고 이파리도 제대로 못 내는
나무를 보시고 말았다.
'저 나무도 날 닮았나보다.'그 한마디에
숨이 콱 막혔다.

'푸른손'이라고 불릴 만큼 무슨 식물이건
어머니 손에서는 범상치 않게 자랐다.
꽃을 피우고 주렁주렁 모과가 매달린 자람을
기대하셨을 것이었다.
그해 가을, 작정하고 뒤란에 있던 나무를
앞마당으로 옮겼다.
눈앞에 두고 살피는 것으로 속죄를 대신 할 심사였다.
나무는 거름도 도움이 되지 못할 만큼 병약했다.
자식으로 무심했던 마음을 들킨 것처럼 편치 않았다.
말라 죽은 줄 알았다.
올 봄, 유난했던 겨울을 견디고 나무가 살아났다.
연둣빛 이파리가 돋아나고 점점이 꽃순이 올라오더니
분홍 꽃이 피었다.
어머니는 나무가 제 자리를 잡은 걸 보지 못하고
떠나셨다. 사람은 가고 나무에 얽힌 아픔만 남았다.

글 **전경해 집사**

“모세의 광야길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도 인도하시길…”



춘천시 퇴계동 해솔직업사관학교

눈이 닿는 곳마다 초록이 물결친다. 봄은 어디서나 화사하고 싱그럽다. 낮은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있는 춘천시 퇴계동에 해솔직업사관학교(이하 해솔학교) 신축 교사가 들어섰다. 2013년 10월 출항 이후 6년 만의 결실이다. 해솔학교는 북한이탈청년의 직업교육과 취업을 돕는 기숙형 직업 대안학교다. 청년들의 심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해 이 시대 중산층으로서 필요로하는 리더로 성장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1~3년 동안 인성교육과 기술교육, 기본학습능력 등을 배양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멘토링의 역할을 한다.

설립자 김영우 이사장은 30년 간 한국외환은행에서 근무했다. 97~99년까자 북한 신포지구 초대 지점장으로 취임해 어려운 북한의 실상을 보게됐다. 당시는 '고난의 행군'으로 불릴만큼 북한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다. 김 이사장은 퇴직 후 대안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에서 봉사하며 탈북청소년 교육을 준비했다. 김 이사장은 2013년 설립을 앞두고 "거칠고 험난한 길을 떠나기엔 배도 작고 동력도 약했다. 좌초할 수도 있다고 여러 사람이 말렸지만 이 길은 우리가 꼭 가야할 길."이라며 "이 여정을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은 모세의 광야 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 같이 뒤에서 응원해주는 많은 후원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취업은 생존 자체를 의미한다. 취업은 자립으로 이어지고 결혼해 가정을 이루어 이 땅의 젊은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풀풀 눈발이 날리던 2019년 12월 신축교사 첫 삽을 떴다. 이듬해 3월 공사를 시작해 9개월 만에 기숙사를 제외한 학교시설이 완공됐다. 시내와 가까워 걸어서 10분이면 대형마트와 버스터미널, 전철역으로 갈 수 있다. 학교 주변의 동산은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심란할 때 머리를 식혀줄 장소다. 착공 1년여 만에 학생들은 새 보금자리로 이사했다. 7년 간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 퇴계동 신축교사로 옮겨왔다. 270평 보금자리에 내부시설까지 마쳤다. 지난달 시작된 4층 기숙사 공사가 마무리되면 더 폭넓은 학교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춘천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전용시설이 없다. 그들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분리 공간이 없어 여학생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영어와 국어는 탈청소년들이 학업을 잇기 어려운 과목이다.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영어는 필수, 토익 점수가 높으면 취업에 도움이 되기에 올 여름방학부터 영어, 국어 등 특강을 열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다목적실 벽면에는 개인과 후원단체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후원에 동참한 이들의 명단이다. 김영우 이사장의 감회는 남다르다. 김 이사장은 "7년 전 개교 이후 꿈꿔왔던 학교의 모습이다. 천신만고 끝에 오늘에 이른 것은 강원도와 춘천시, 많은 동역자와 후원자들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며 "춘천으로 오길 참 잘했다. 이제는 순항이다. 내실있게 운영해 청년들에게 공헌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큰 욕심 없다. 학생들이 성장하고 자리 잡는 모습을 지켜보는 즐거움만 남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2013년 10월 학생 6명으로 개교 현재 22명
2019년 12월 신축교사 첫삽 올8월 완공
강원도, 춘천시, 개인후원 등으로 운영

신축교사의 교실과 커뮤니티실, 다목적실, 열린도서관, 식당 등이 단장을 마쳤다. 다목적실은 무르익은 봄부터 겨울까지 변화무쌍한 사계절을 담아낸다. 영화를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까지 갖췄다. 김기찬 상임이사가 신축교사 이곳저곳을 소개해줬다. "학교 비품은 여러 단체에서 기부해줬다. 폐지된 춘천 강원학사에서 옷장이며 침대를 기부하고 신한은행에서 의자와 책상 등을 보내줬다."며 "기숙사가 완공되면 모두 제자리를 찾을 물건들이다. 당초 설계보다 축소됐어도 얼마나 멋진 공간인지 모른다."고 했다. 김이사는 빠른 걸음으로 위아래층을 오르내리며 학생들보다 더 들뜬 모습으로 학교 안팎을 보여줬다. 석사동 기숙사에서 신축교사까지는 5.5km, 학교측은 폴리텍대학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밥을 실어 나른다. 기숙사 완공까지 2개월여의 시간이 남아있어서다.

빈 교실에서 주영훈(26.가명)씨가 책과 씨름 중이다.

주씨는 6개월 전 춘천으로 왔다. 2년 전 함경북도 혜산을 떠나 중국으로 갔다. 1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다가 탈북했다. 주씨는 북한에서 금광의 인부로 일했다. 해솔학교는 그가 발견한 금광이다. 해솔학교는 하나원을 통해 소개받았다. 4월24일 첫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익숙하지 않은 시험이라 연습이 필요한 듯 6월 3차 시험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상금을 걸고 그의 도전을 독려하고 있다. 그의 꿈은 가스관리사 등 에너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설비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박철호(20.가명)군은 2017년 9월 남한으로 왔다. 중국에서 출생해 12세까지 어머니와 살았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3년 동안 친척 집에 머물렀다. 먼저 남한으로 온 어머니가 불러들일 때까지 5년을 떨어져 살았다. 박군은 지난해 12월 수료식에 학생대표로 인사말을 했다. 올해 대학에 진학해 물리치료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 박군은 조선족 학교를 다녔으나 남한에 와서 검정고시로 초중고를 수료했다. 박군은 "영어가 가장 어려워 공부하기 힘들었다. 1학년 마치고 군입대 할 계획이다. 남한에서는 병역을 마쳐야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박군은 음악적 재능이 있어 특기교육으로 기타와 드럼을 배웠다. 피아노는 배우지 않았어도 연주할 만큼 재능이 뛰어나다.

'드림 상록수교육봉사단'은 은퇴 교육자들의 모임이다. 대학총장부터 교육장, 교장을 지낸 14명의 교육자들이 청년들의 배움을 돕고 있다. 청년들 대부분은 이른나이에 인생의 질고를 경험했다. 사선을 넘나들며 이산의 아픔과 함께 온갖 삶의 고초를 겪고 이땅에 당도했다. 출항 7년째의 해솔호는 험난한 바닷길을 벗어나 희망에 찬 여정을 시작했다.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다. 신축교사 뜰에 소나무들을 심었다. 나무에는 '해처럼 밝고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이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사선을 넘어온 학생들은 옮겨 심어진 나무와 같다. 학교는 이들의 버팀목이다. 넘어지지 않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

글 전경해 집사





기꺼이 불편한 예배

김재우 지음
이레서원 刊

'예배'는 기독교인에게는 너무 중요한 단어이며, 수없이 들었던 단어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누구를 예배하는가'라는 예배 대상에 대한 논의되는 글은 많이 있었다. 하지만 '누구와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드물었다. 이 책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우리만의 예배를 넘어, 기꺼이 다른 이들에게로 나아가는 불편한 예배를 꿈꾼다.

'환대'란 단어는 어쩌면 많은 이에게 생소할 수 있다. 그러나 나그네와 손님을 환영하는 전통은 성경에서,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전통을 잃어버렸을 뿐이다. 이민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을 향한 증오/혐오 범죄가 큰 문제로 떠오르는 지금, 이 '환대'의 문화를 되찾아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저자는 미국 조지아주 클라크스턴에서 이민자와 난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들과 예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모든 문화 속에 '환대'가 있음을 발견하고는 이 책에서 그 환대의 여정 가운데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엮어 일상의 이야기로 전달한다. 특히 저자 본인이 이민자로서 낯선 이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왔기에 더 진솔하고 깊이 있는 묵상을 담아냈다.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는 제목은 저자가 말하고픈 주제를 중의적으로 잘 표현한다. 먼저, '예배는 원래 불편한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타인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도전을 준다. 동시에 '예배는 기꺼이,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의 예배는 모든 피조물의 당연한 반응이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 정신과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흔들림없이 하기 위한 발판”



먼저, 디아코니아 1단계 교육으로 이끌어 주시고, 18기 전 과정을 마치도록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부터 춘천동부교회를 다니게 된 박은주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3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초.중.고때는 부모님의 하나님이셨지, 저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청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정말 삶을 드려 힘껏 주님께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들 핑계로 헤이해졌던 나의 신앙에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도 초점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아서였는지 삶을 살아낼 힘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과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예민해지고,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하면서 현명한 아내, 지혜로운 엄마가 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괴롭더라구요. 주님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런 소망없는 저를 변화시켜 주실분이 없었습니다. 그런시기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코로나로 영상예배를 드렸었는데 말씀을 들을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춘천동부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회학교 예배도 체계적으로 드려지는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로 가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매주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교회 가는 걸 정말 기뻐합니다. 정말 애써주시고 기도해주신 교회학교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도 매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위로받고, 쓰러진 저를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곳에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교회를, 담임 목사님의 목회방향을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아코니아 학교 1단계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디아코니아'가 뭔지도 모르는 저였습니다.

그러나 한주 한주 담임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여러 신앙적 고민과 더불어 "아! 내가 지금껏 해 온 신앙생활에 이미 디아코니아가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게 디아코니아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교육받은 여러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자칫 외로울 수 있는 교회적응에 '평생 동료'를 얻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디아코니아 학교 교육과 예배를 통해 제 신앙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와 듣는 말씀은 더욱 은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힘을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제 삶에 있었던 여러 갈등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생활을 주님께서 하게해 주시면서 제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가정에서의 남편과의 갈등, 아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지만, 사람으로 풀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 번 믿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만져가고 계시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디아코니아 교육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흔들림없이 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단계, 3단계 교육 마쳤을 땐 멀리 날아오를 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1단계 교육 마칠 때까지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담임목사님, 스텝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디아코니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춘천 동부교회 성도로서 예수그리스도의 섬김을 닮은 디아코노스로 살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모두를 허락하시어 춘천동부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 **박은주 집사**



홈런~~~!



색색별 풍선 방방이가 물결친다. 어떤 응원석에선 흥분하여 모자와 방망이를 구장으로 던지지만 너무 가벼워서 기분처럼 날아가 주지 않는다.

함성은 하늘을 덮고 구장 너머 멀리멀리 날아 간다. 방방 뛰는 응원단, 춤을 추며 어깨에 어깨를 스크럼 짜고 날려 보내는 스트레스.

타자는 상황을 둘러 본다. 1루엔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빚, 빚, 빚.

2루엔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린 가족에서부터 친척은 물론, 친구 동료 가까운 주위 사람들.

3루엔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쳤을지도 모를 질병이... 지금은 투 아웃 투 스트라이크.

타자는 방망이를 휘두를 힘도 의욕도 없다. 공이 보이지도 않는다. 어떻게 맞추랴. 공이 날아오면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공에 대해 포기하고 외면한 지 오래다.

공이 날아오는 그 사이, 타자의 마음에 파노라마처럼 지난날들이 지나간다.

인생이 뭔가.

홈런을 쳤던 일도, 맥없이 헛 스윙만 하던 때도 있었다.

홈런까지는 아니고 멋지게 공을 날릴 수 있었는데, 앞에서 다른 선수들이 공을 쳐볼 기회도 넘겨주지 않고 아웃된 일들은 그 얼마나 부지기수인가.

부모 가족 친구 주위 사람들에게 책임전가 하고 혼자 잘났던 일들이 지금 떠오른 건 머리꼭지에 땀나는 일이지만 그나마 참 다행이다.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통해서 누구나 공을 치고 주고 받고 달린다. 공을 칠 때마다

각도를 생각하고 더 센 공을 만들어 내려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훈련을 이만큼 안 받은 선수가 그 누군가.

내면을 향한 힘을 쌓기보다 쉽게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사람의 작은 박수에 들레며... 그런대로 운 좋게 이끌어진 삶은 아니었는지.

누군들 힘차게 방망이를 휘두르고 달려보지 않았을까.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평생 밥을 먹고 산다는데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건만 지금 손에 남은 건 무엇인지.

인간관계를 본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수십 년 사업이 무너졌을 때, 또는 지난날의 공과가 담긴 상자를 열었을 때 텅 비어 있는 인생. 원망, 불만, 헛물 켠 삽질에 먼저 절망이 앞선다.

골프계 세계 최고 선수의 이야기다. 거듭 점수가 안 나올 때,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 자세부터 겸손하게 다시 조정하여 자신의 매너리즘을 극복했단다.

그러나 생명은 좀 다르다. 아직은 푸르른 나이에 질병이나 사고로 생명이 마지막일 때, 흰머리 굽은 허리, 멋진 마무리까진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는 억울하다. 다시 일어설 여력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대로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니!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본다. 어차피 떠날 인생이고 누구나 떠나는 세상임에도 큰 가시 하나가 염통을 쿡 쑤신다.

30살 한 여성이 간, 폐 척수까지 암세포로 덮여 생존확률 2%로 뼈만 남은 채 온 세상을 향해 노랠 불렀다. 아직 2%는 0%가 아니라고. 자기가 만든 노래 "It's okay!"

드디어 공이 날아왔다. 따악! 공을 받아치는데 만루 홈런! 홈런! 홈런! 이다.

아주 서서히 홈을 향해 달린다.

1루에 그동안 쌓였던 연체 공과금, 채무 고지서 등이 사라지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등에 날개가 돋친다.

2루. 행동만이 아니라 눈빛 표정까지 찬 바람을 일으키던 사람이 다가와 등을 두드려 준다. "잘했어! 언젠가 홈런 칠 줄 알았어!" 모든 관계는 멋지게 뒤집어진다.

3루엔 사나운 폭력적인 개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를 드러내고 쫓아오다가 뒤늦게 나타난 주인 앞에 배를 드러내며 애교까지 부린다. 주인은 미친듯한 개를 저만큼 끌고 간다. 이미 심장 간은 땅으로 떨어져 버렸다. 빌어먹을 개.새.끼!

드디어 홈으로 들어선다.

응원 풍선 방방이가 날아온다.

언제 들어봤던가. 0 00! 0 00! 이름이 지진 난 듯 땅을 들썩인다.

그러나 기억하라! 한 번의 홈런이 인생을 뒤바꾸지도, 오늘의 홈런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다. 다시 공을 때리지 못할 수도, 잘 때려도 아웃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살아 있는 한, 매 순간 경기는 계속되고 기쁨도 고민도 거듭하며 방망이 하나 들고 인생 구장에 서는 게 인생이다.

해가 넘어가고 있다. 응원석도 비었다. 응원 방망이가 바람에 이리저리 구른다. 인생은 시한폭탄이지만 마지막, 돌아갈 곳이 있는 우리는 언제나 홈런이다.

하늘 향해 할 수 있는 단 한 마디는 어떤 경우도 <It's okay!>.



글 임양숙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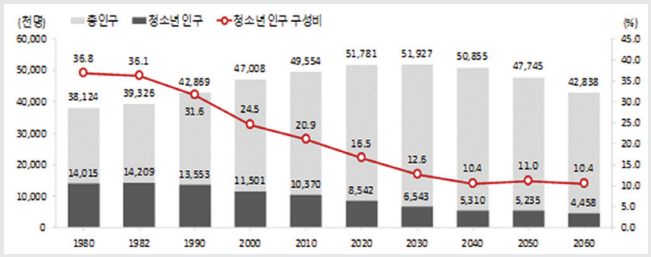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는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청소년인구(9세~24세)는 854만 2천명으로 총 인구의 16.5%를 차지하며, 2060년에는 청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아동 · 청소년이 미래의 희망이자 중요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사실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동시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 · 고등학생 10명 중 4명(39.9%)은 평상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며, 10명 중 3명(28.2%)은 최근 12개월 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명 중 7명은 최근 30일 내 흡연한 경험이 있으며, 100명 중 15명은 최근 30일 내 음주한 적이 있습니다. 10대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상태입니다. 지금은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신체 · 정신 건강 성장에 더욱 주의를 요해야 하는 상황이며, 학업 외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신체 · 정서 측면에서 급격한 발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는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국가정책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은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금 현존하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청소년들의 많은 일탈 행동이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의 변화 그리고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도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낙인찍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을 대변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의 마음을 가진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를 보급함과 동시에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능력을 나누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입시 준비'를 빼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건 전부 제공합니다. 9세~24세의 연령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취미도 개발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지원,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진로체험 및 탐색, 지역사회 내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활동, 공감과 연대를 위한 봉사활동,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섬기는 국가보훈활동,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습득,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전활동 등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청소년상담, 학부모 상담, 자원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모든 청소년의 삶에 변화가 이뤄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적성에 맞춰 학업을 선택할 수 있고, 충분한 휴식과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으며, 가족들과 소통하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활동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즉각적으로 발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정신을 함양한 청소년지도사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청소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청소년들의 변화와 성장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며 인내를 갖고 동행해야 하기에 더욱 디아코노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도전에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을 지원합니다. 경험으로부터 오는 성공과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패에 있어서 건강하게 극복하고 버텨내고 새로운 해결법을 찾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동 · 청소년이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들을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춘천청소년문화의집 최송이 관장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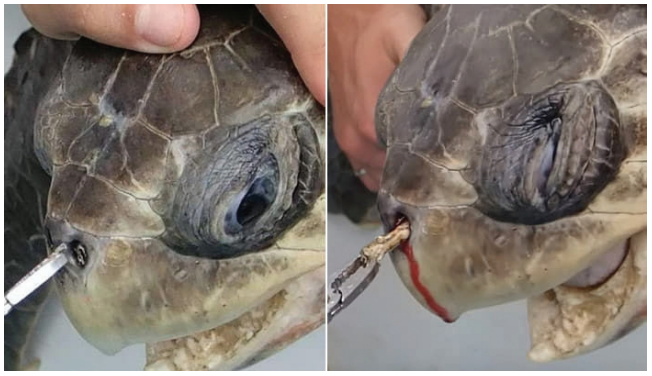


사진 : youtube 'Sea Turtle Biologist'

어느날 우연히 TV를 보다가 거북이가 코피 흘리는 장면을 무심코 본 적이 있다. 아픈 동물이 나오는 방송이라 생각했지만 얼마 후 다시 방송을 보았을 때 그 내용은 빨대가 거북이 코에 박힌걸 빼내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빨대를 빼내는 과정에 거북이는 고통스러워 눈을 질끈 감고 다리를 허우적대고 있었다. 내가 무심코 버린 빨대가 수 많은 동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빨대를 사용하고 있는가?

여름이면 커피숍에서 시원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시키곤 했다. 워낙에 커피를 좋아해 여름이면 하루에 한두 잔은 기본이다. 그 때마다 컵에는 빨대가 어김없이 꽂혀 있었고 당연히 빨대를 통해 시원한 음료를 목구멍으로 넘기곤 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커피전문점에서는 연간 26억개의 플라스틱 빨대가 소비되고 있다고 한다. 패스트푸드점 및 기타 테이크아웃 매장을 포함하면 그 소비는 어마어마 할 것이다.

나 혼자 하루 2개의 빨대를 소비한다고 보면 연간 소비량은 700개 이상 나온다는 계산이다. 최근 코로나19로 테이크아웃이 늘고있다. 플라스틱 용기에 플라스틱 빨대가 늘 동반한다.

손님의 편의를 생각하면 매장의 입장에선 당연하다. 그러나 누구하나 빨대를 사양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부터라도 빨대 사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나 부터 빨대 사용을 줄이는 습관을 만들자.

빨대는 다양한 색깔을 만들기 위해 색소 성분이 들어가 플라스틱 재활용도 어렵다고 한다.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이다.

플라스틱 용기는 최근 정부 방침으로 일부 제한하고 있지만 빨대는 제한 규정이 없어 무차별적으로 사용된다. 음료에 붙어있는 빨대부터 매장 카운터에 쌓여있는 빨대까지... 소비자가 원하면 소비는 늘 자유롭다.



사진 : 비영리단체 ROUTE USA 인스타그램

언제부턴가 나는 커피 매장에 가면 빨대는 빼달라고 주문한다. 흘릴 염려가 있어 조금은 불편하지만 내가 남기는 쓰레기는 줄여야하지 않을까?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이름은 못 남길망정 쓰레기는 남기지 말아야하지 않을까?

식품 매장에서도 가급적 빨대가 있는 음료는 구매하지 않으며 조금은 비싸지만 플라스틱 용기보다 종이팩이나 유리병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 자주 카메라를 들고 야외로 향한다. 그 중 엄마들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된다. 그 때마다 아이의 옆에 빨대가 꽂힌 음료를 보게 된다. 아이가 용기를 직접 들고 마시기 어려우니 당연하기도 하다. 하지만 유아용품 매장에 가면 빨대가 달린 아이용 음료병을 판매한다. 조금만 신경쓰면 아이가 소비하는 빨대 역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물려받을 세상이 플라스틱 쓰레기에 고통 받는 세상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는 너무 편리함에 길들여 있는것이 아닐까? 조금은 불편해도 이왕이면 친환경적인 제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하다. 최근 다양한 종이 용기가 개발되고 있으며, 나무를 이용한 일회용품도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하기 쉬워 우리 주변에는 늘 플라스틱이 있다.

플라스틱은 잘 썩지도 않는다. 소각할 경우 유해 성분이 배출되고, 땅 속에 매립할 경우 아주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할 정도로 처치 곤란한 자재이다. 또한 매년 바다로 떠다니는 플라스틱이 무려 800만톤에 달한다고 한다. 이 플라스틱을 먹고 죽어가는 동물의 수는 바닷새 100만마리, 바다거북 10만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일상 속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습관들

1. 외출할 때는 텀블러와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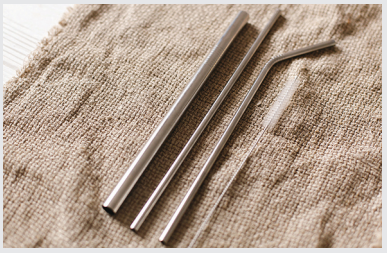


사진 : 소비자보호원

빨대는 6가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분리 및 재활용이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에겐 대체재가 있다는 사실. 종이 빨대, 스테인리스 빨대, 실리콘 빨대를 휴대하며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보시는건 어떨까?

2. 샴푸, 주방세제 대신 천연 비누를 사용하자



사진 : 소비자보호원

샴푸와 주방세제를 구매할 때마다 늘어나는 플라스틱 용기. 이 또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시중에는 샴푸와 주방 세재를 대체할 수 있는 비누가 많이 나와있다. "비누라 잘 씻기지 않는 것 아냐?"하고 세척 효능을 의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풍성한 거품은 물론, 문제 없이 깨끗하게 씻겨나간다.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줄여나가는 법,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3. 페트병 생수를 사지 않는다.



사진 : 소비자보호원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페트병 생수를 대량 구매해서 마시는 분들이 많다. 생수병으로 소비되는 플라스틱이 모이고 모이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된다. 페트병에 든 생수 대신, 보리를 섞어 고소한 보리차를 끓여 마시거나 정수기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조금 번거롭겠지만, 그만큼 환경을 지키는데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글 아름다운이야기 편집부

“제 작품이 널리 알려져 전도용으로 사용되길”

기독일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멈춘 기독문화생활의 아쉬움을 돕고자 독자들에게 기독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기독 미술 작가 소개> 코너를 준비했다. 이번에 소개할 기독작가는 최영이 작가이다.

최영이 작가님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남 사천(삼천포)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1977년 부산 야구경기장에서 카터 대통령의 미군철수 반대 집회에 참가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미대를 나왔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을 도와드리면서 그림을 쉬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릴 계획을 가졌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88년 봄에 예배 드리고 통성기도 드릴 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사야 6:8절 '내가 누구를 보낼꼬?' 란 주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주로 십자가를 많이 그려 국민일보에 2014년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7번째 십자가 화가로 소개 되었습니다. 성화만 주로 그렸습니다. 어느날 남한에서 북쪽을 향해 기도 드리는 환상을 보고 복음 통일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 아트페어나 개인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 부산으로 거처를 옮겨서 부산미술협회 전에 참가를 했는데 불상은 몇 점 있었는데 기독교적인 그림이 없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놀라서 기독교적인 그림만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 중 한가지만 소개하면 2007년 부산대부흥 집회 때 부산성시화 총무님께서 10만개의 부채 제작을 부탁하셔 순종하는 마음으로 허락했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외국으로 미술선교 나가는 길이 열려 미국을 비롯하여 2012년에는 고형원 선교사님의 열방선교팀과 함께 웨일즈에서 개인전, 그리고 런던 올림픽 때 트리니티교회에서도 개인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평택, 춘천, 서울, 양평 등지에서 개인전을 매 달 하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코로나19로 쉬게 되니 힘들다가 결국 2월달에 탈진 되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주님 은혜로 10월에 부산 국제 아트페어 개인부스전도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던 성경말씀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작품전시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소개한다면요.

"작품마다 간증 거리가 많지만 특히 2008 북경아트페어에서 어떤 스님께서 다른 작품들은 그냥 가시는데 '부활'이란 제 작품 앞에서 많은 시간을 묵상하던 모습이 매우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스님이 제 작품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길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제가 구원받고 주님께 드릴 것은 오직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 믿는 성도들은 주님 나라 위해 힘쓰시길 기도 드리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아트 상품이 널리 알려져서 전도용으로 사용되길 기대하며 복음통일 예수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발표하신 작품들 중 3작품 정도 소개해주신다면요.



작품1

제목:예수님과 함께(2019년 제작)

사이즈:40.9 X 53cm 재료:Oil on canvas

"기문연 모임으로 부산 정관에 위치한 대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누가 저와 자매님의 뒷모습을 보내와 순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생각하며 그렸습니다. 왼쪽은 저이고요, 오른쪽은 예수님 또는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품2

제목:정물이 있는 어린 양 (2001년 제작)

사이즈:162X112.1cm 재료:Oil on canvas

"정물사진을 여러 장 찍어놓고 마음에 든 것을 골라 기도 드리는 가운데 어린양 예수님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그려 보았습니다."



작품3

제목:나를 그려라 (2007년 제작)

사이즈:45.5X53cm 재료:Oil on canvas

"2007년 새터민을(탈북민) 위한 후원금 마련을 위해 부산시청에서 개인전 오픈일 전날 밤 파렛트를 나이프로 치우려고 할 때 갑자기" 나를 그려라"는 음성에 놀라 파렛트에 있는 물감으로 나이프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음란해져 가고 있고 교회건물은 날로 화려해 가고 있지만 그 속에는 부정 부패로 가득함을 지적하셔서 통곡하면서 그렸습니다."

출처 기독일보조성호 기자
(josungho2003@gmail.com)



최영이 작가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인선교회,
부산미술협회, 부산기독미술협회,
부산 수영로교회

라떼파파 이야기



아이 셋을 키우는 육아 전쟁 속에서
진짜 아빠가 되어가는
한 초보 아빠의 소소한 단상을 적어봤습니다.

너의 이름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김춘수의 시 <꽃> 中)

김춘수의 시 <꽃>의 첫 구절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대표적인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란 '특정한 대상이나 유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개체를 표현하는 유일무이한 명사라니, 새삼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또 그만큼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가정에서는 스스로 이름을 짓지 못하고, 다른 가족에게 부탁하거나 작명소에 가기도 하는 거겠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시 <꽃> 中)

쌍둥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 녀석들의 이름이 입에 딱 달라붙지는 않았습니다. 첫째는 "신의", 둘째는 "민의"였는데, 아무래도 "~의"로 끝나는 이름 자체가 생소한데다가, "발음이 좀 힘들지 않겠냐" 라는 주변 분들의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누가 국어 교사 아니랄까 봐, 직업적 소양을 발휘해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 제5항에 나오는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를 인용하여 절대 발음이 어렵지 않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 자신도 갓 태어나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두 녀석들에게 "신의[시니]", "민의[미니]"라고 부르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어느새 어색함은 익숙함으로, 익숙함은 애정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제 인생의 소중한 꽃 2개로 아로새겨졌습니다. ('~의'에 대한 고집으로, 셋째 이름은 '진의'랍니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김춘수의 시 <꽃> 中)

사람은 저마다 다른 품종의 꽃과 같은 존재이기에, 각자의 빛깔과 향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태어난 아이들이 어떤 특성(빛깔과 향기)을 지

녔는지 모르기에, 부모들은 보통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짓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아이들의 미래상을 그리며 이름을 짓기 마련입니다. 처음 부모님께선 첫째를 무엘(사무엘), 둘째를 니엘(다니엘)로 짓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엘'자 돌림이면... 셋째는 '가브리엘?', '미카엘??') 성경적이면서도, 세련된 이름이었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이름이라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남자치고는 중성적인 '지원'이라는 이름이 그리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기에, 더 그런 걱정이 앞섰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한 '신의'는 '새로울 신(新) + 뜻 의(義)', 민의는 '영민할 민(敏) + 뜻 의(義)'로 반듯한 자신의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었습니다. 또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기억에 남는 이름이 여러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전략적 판단(?)도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제 고집을 관철시켰고, 아이들은 혈연이지만, '의' 남매로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ㅎㅎ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춘수의 시 〈꽃〉 中)

문득 이 글이 2세를 계획 중이시거나, 태중 아가에게 아직 이름을 못 정해준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작 이름 짓는 걸 가지고, 시를 인용해서 너무 진지하게 쓴 건 아닌가 하는 부끄러움도 듭니다. 요즘처럼 개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현실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 글은 그냥 제 주관적인 '육아일기'이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해주시고 가볍게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자신의 아이 이름은 부모 자신이 직접 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행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실제로 여행을 가는 것보다 더 설렐 수 있는 것처럼, 내 아이의 이름을 고민하는 그 시간 자체도 좋은 부모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성장 과정일 테니까요.

글 **김지원 집사**



“요리로 소통하며 사랑을 나누세요”

춘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요리로 보는 세상’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춘천시 중앙로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5월 한 달 매주 토요일마다 요리교실이 열렸다. 초 · 중학생 자녀를 둔 4가정(4인 기준)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문화의 집에서 식재료를 제공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태국요리를 배우고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이다. 요리재료는 강의 전날 각 가정에 배달을 끝냈다. '요리로 보는 세상'은 가족 간의 화합과 소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의집 반기명 주임은 "코로나로 청소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가족과 함께 있어 좋은 점도 많지만 다툼이 많아져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든 시기."라며 "요리는 늘어난 가족과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청소년들은 낯선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어떤 가정은 여행 가서 먹어봤던 요리를 직접 만들면서 즐거움을 더 한다."고 했다.

강사는 네띠까 판투까논(36.Phantukanon Nettika)씨. 두 시간짜리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를 단단히 했다. 프로그램 취지에 걸맞게 딸 강율(8세)양을 보조요리사로 기용했다. 컴퓨터 카메라와 메인 카메라 한 대, 반기명 주임이 연출과 기술지원에 나섰다. "안녕하세요~!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네띠까씨가 인사와 함께 요리와 양념을 소개했다. "오늘 요리는 '팟 시이우', 태국식 볶음 쌀국수예요." 태국어로 팟은 볶다, 볶음이라는 뜻이고 시이우는 간장이라는 말이다. 센 야이(넓은 국수)라 불리는 쌀국수에 닭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등의 고기를 넣고 볶는 음식이다. 어간장, 굴소스, 검은 간장으로 간을 하고 케일, 바질 등의 야채를 넣어 요리를 완성한다.

4가정이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비대면 줌 온라인 강의에 참여했다. 요리가 서툰 청소년들이 수시로 질문했다. 덩어리 진 쌀국수를 풀기 시작하자 보조요리사 강율 양이 엄마를 도왔다. 고기를 볶고 양념된 국수를 볶자 강의실은 음식냄새로 가득찼다.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도 참아야하니 보조요리사의 길은 험난하다. 1시간 만에 팟 시이우 완성. 쉴틈도 없이 또 다른 태국요리를 시작했다. 네띠까씨는 태국 방콕 출신으로 12년 전 한국에 왔다. 강원대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중 남편을 만나 8년 전 결혼했다. 두 아이의 엄마이며 태국어 사법통역사로 활동 중이다. 그녀가 가장 잘 만드는 한국음식은 '강된장'. "한국음식은 쉬워 보여도 막상 시작하면 엄청 까다롭다. 처음 된장찌개를 만들었을 때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다." 네띠까씨는 요리에 관심도 많고 만드는 것도 즐긴다. 한국, 태국 어느 음식이든 자신 있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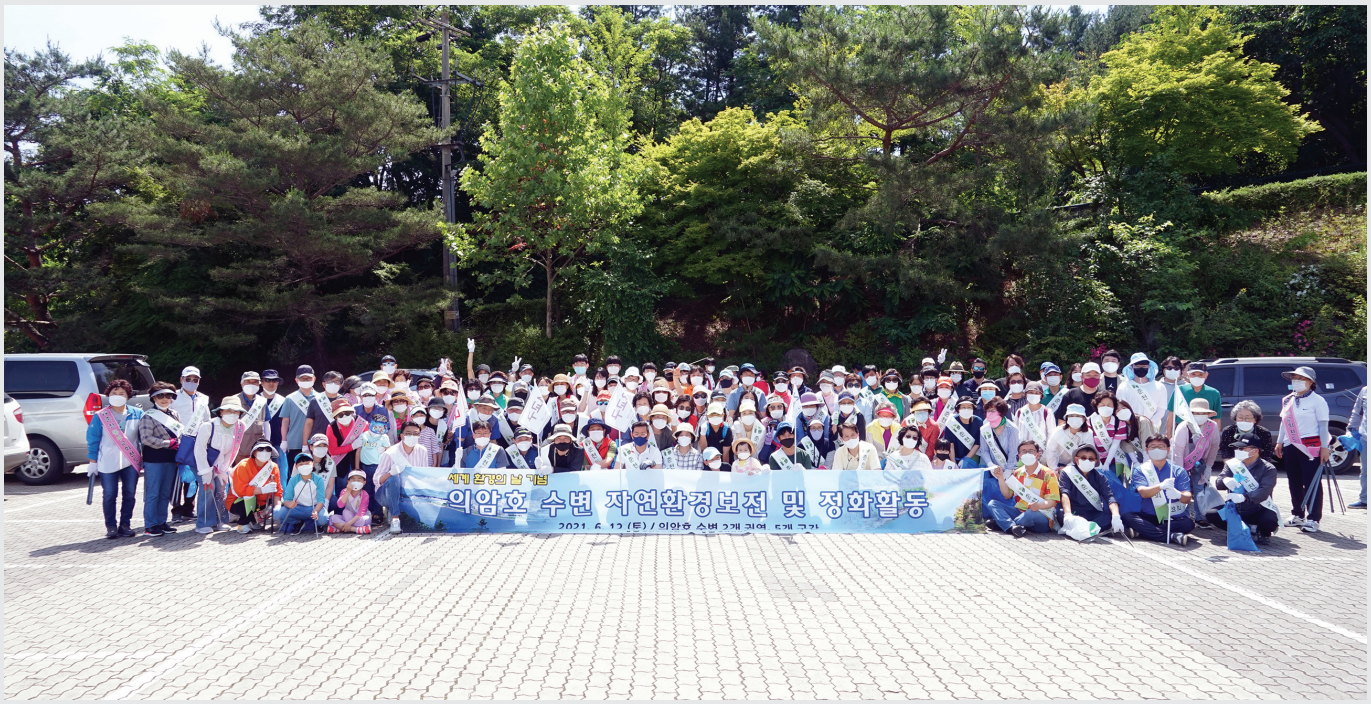
문화의집은 (사)동부디아코니아(이사장 김한호)가 춘천시로부터 수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다. 문화의집은 청소년의 자치와 참여를 바탕으로 문화, 동아리, 봉사, 자기개발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소통 공간이다. 7월, 9월, 11월 3개월 동안 캄보디아, 인도, 베트남 등의 요리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좌 개설 전에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및 SNS, 춘천시 청소년 사이트에 공고하고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음식은 추억이다. 문화의 집이 마련한 요리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요리로 보는 세상은 어떨까? 그렇다, 요리로 보는 세상은 맛있다!

글 아름다운이야기 편집부



“아름다운 자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사명”

춘천동부교회 환경주일 기념예배와 행사



6월5일은 '세계환경의 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기념일이다. 해양 오염과 지구 온난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환경보호를 위해 1974년 '오직 하나의 지구(Only One Earth)'라는 주제로 처음 개최되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7년 이후 매년 세계 환경의 날 주제를 선정해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96년부터 관련 행사를 진행해왔다. 올해 주제는 '생태계 복원(Ecosystem Restoration)'으로 파키스탄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동부교회는 수년 전부터 이날을 환경주일로 정해 행사를 열고 있다. 환경주일 기념예배와 환경실태 사진전, 전 교인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과 홍보로 지역사회에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5월 21일 총남선교회 임원들이 의암호변 환경오염과 훼손 실태 파악에 나섰다. 호수변으로 밀려 온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폐비닐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촬영된 사진은 6월6일 교회 본당 앞 로비에 전시돼 교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김한호 목사님은 환경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해양 최상의 포식자 중 하나인 고래가 죽고 있다. 식용을 위한 고래잡이, 기후변화 등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버려진 플라스틱"이라며 "큰 고래 한 마리는 일생 동안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흡



수한 탄소는 죽어도 저장이 된다. 고래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 390억톤의 4%에 해당하는 양을 절감시킨다"고 했다. 이어 "플랑크톤은 고래의 배설물을 먹고 산다. 고래가 사라지면 바다생물도 살 수 없다."고 덧붙였다.

6월12일, 춘천베어스타운 호텔 앞 주차장에 150여명의 춘천동부교회 교인들이 모였다. 총남선교회 주관으로 전 교인이 참여하는 환경의 날 행사가 진행됐다. 교구별, 기관별로 의암호 수변 일원(근화동~삼천동~송암동~의담댐 구간)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초등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150여명의 교인들이 행사에 참여했다. 집결지인 베어스호텔 주차장부터 환경정화가 시작됐다. 캠핑카 주차장 주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엔 숨겨둔(?)쓰레기가 넘쳐났다. 자전거 도로변과 수변 풀숲 등에도 패트병과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많았다. 춘천시청과 협의를 통해 수거된 쓰레기는 시 청소차량의 도움을 받았다. 코로나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환경주간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담임 목사님은 "아름다운 자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사명이다. 오늘 이 행사가 '작은 울림'으로 소리 없이 퍼져나가 지구를 살리는 동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봄비가 장맛비처럼 내리고 꽃은 계절을 넘나들며 피고 진다. 철새인 제비가 제주도에 텃새로 자리잡았다. 아열대 어종이 우리나라 인근에서 잡히는 등 우리 주변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다. 환경파괴에서 비롯된 기후변화는 생태계 교란을 가져온다. 학계에서는 환경파괴가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 등의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연결된다고 한다. 시인 조동화는 '나 하나 꽃 피어/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말하지 말아라/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결국 풀밭이 온통/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중략)' 고 노래했다. 떨어진 휴지, 버려진 패트병 하나를 줍는다고 당장 환경이 정화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은 온 풀밭을 꽃밭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변화의 시작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동식물을 바라보게 하소서. 더러워지는 땅과 물과 공기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글 아름다운이야기 편집부



동부소식

디아코니아 단신

2021 상반기 전도부 개강

2021년 3월 10일(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영혼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전도부원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결단하며 전도부 개강예배를 드렸습니다. 영혼 구원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부디아코니아 법인의 날 4th 전직원 세미나" 개최

2021년 3월 19일 (금) 사단법인 동부디아코니아(대표 김한호)가 춘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춘천시아이돌봄지원센터, 퇴계꿈자람나눔터 등 4개 복지시설 전직원 및 김한호대표이사를 비롯한 법인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동부디아코니아 법인의 날 전직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021 상반기 찾아가는 봉사당회

지역사회를 찾아가서 섬기는 '찾아가는 봉사당회'가 2021년 3월 10일(토) 오전에 진행되었습니다. 당회원 23명은 교회가 속한 춘천명동지역의 상가 및 공공시설, 버스정류장, 노상 등을 다니며 소독과 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아코니아 학교 1단계 18기 교육 성료

디아코니아학교 1단계 18기 교육이 지난 4월 18일 주일 개강하여 5월 22일 수료식을 맞았습니다. 20여명의 새가족, 기존 성도들로 구성된 금번 18기 교육생들은 1주차 교육에서 김한호 담임목사님의 춘천동부교회의 비전 강의를 들으며 우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 사단법인 동부디아코니아 산하기관 연합헌신예배

사단법인 동부디아코니아 산하기관 연합헌신예배가 2021년 5월 2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드려졌습니다. 법인 임원진 및 법인 산하기관 직원들 64명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옥외 게시판 완공식 및 제막식

2021년 5월 26일 (수) 수요기도회를 마치고 교회 옥외 게시판 설치 완공에 감사를 드리며 완공식 및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설치 된 게시판은 디아코니아 학교 3단계 3,4,5,6기 졸업생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설치 된 교회행사 게시판, 교회기관 안내판, 교회역사 현황판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를 알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자리하길 소망합니다.



예배부

제133주년 세계기도일

2021년 3월 12일 (금) 제133주년 세계기도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세계 기도하는 여성들이 한 날, 한 시,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누아투' 땅에 치유와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였습니다.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라!' 라는 주제로 모였고,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춘천동부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이날 본교회 여전도회와 담임목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전 세계 기독여성이 함께 기도하는 귀한 예배가 강원도와 춘천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하며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총남선교회 헌신예배

2021년 3월 14일(주일) 총남선교회 헌신예배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드렸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염려가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와 찬양을 올려 드렸고, 특별히 꿈꾸는 교회 담임으로 시무하시는 남궁령 목사님 설교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부소식

종려 주일 예배

2021년 3월 28일 (주일)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인 종려 주일로 예배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회복과 하나 됨의 성찬'이라는 주제로 드려졌습니다. 특별히 유아세례를 받은 교회학교 자녀들도 함께 성찬에 참여하여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세례식

2021년 4월 4일 (주일) 부활절을 맞아 세례식(4명)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분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예수님처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41주년 장애인의 날

2021년 4월 20일 (주일)은 제 41주년 장애인의 날입니다.
총회는 이를 위해 4월 18일 주일을 장애인주일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교회는 18일 장애인 주일을 맞아, '한국밀알선교단&소리보기 중창단'과 함께하는 장애인주일 디아코니아 예배를 거행하였습니다. 밀알선교단장 조병성 목사님의 말씀, 밀알선교단 간사이시며, 뇌병변 장애인 이석희 간사님의 간증을 은혜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시각장애인 중창팀인 소리보기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안수집사회 헌신예배

2021년 4월 25일 (주일) 안수집사회 헌신예배가 있었습니다. 강사목사님이신 울산사랑선교교회 이기주 목사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증거 해주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창립기념주일 및 어린이주일예배

2021년 5월 2일 (주일) 교회창립기념주일 및 어린이주일예배가 5월 첫 주일예배로 드려졌습니다.
교회의 82번째 생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주일 유아세례식

2021년 5월 2일 (주일)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3부 예배시간 중 유아세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총 6명의 아기들이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다짐을 바탕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2021년5월 9일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들께 감사를 표하고,교회의 어르신들께도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입교예배

2021년 5월 9일 (주일) 저녁찬양예배를 입교예배로 드리며 입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총 6명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본인의 입으로 주 예수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춘천동부교회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입교한 주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5월 토요새벽성찬

2021년 5월 29일 (토) 토요새벽성찬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과 모든 세대가 함께 성찬을 나누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2453예배

2021년 5월 30일 (주일) 2453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예배를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디아코니아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춘천동부교회”

디아코니아(diakonia)는 그리스어로 식탁에서 시중드는 것으로 영혼구원을 위한
섬김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주님(막10:45)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그 섬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춘천동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디아코니아’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이야기 기고를 받습니다”

아름다운이야기에서는 동부교회내뿐 아니라 외부의 좋은 글도 받아 게재 합니다.
시, 수필, 꽁트, 신앙 간증, 평론, 정보소개 등 종류와 상관없으며 내용은 반드시 기독교(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것도 무방합니다. 단, 반기독교적이거나 특정 의도의 글
또는 상업적인 목적의 글은 게재되지 않습니다. 연중 언제든지 글을 접수하며 선정된 글에는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동부교회 교우 여러분과 일반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이인호 010-6270-1744 / lihbingo@hanmail.net 아름다운이야기 편집부

표지사진 :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 풍경 (사진 :이인호 집사)

2021년 통권 77호

창간 2001년 5월 6일
발행일 2021년 7월 4일
발행처 춘천동부교회
발행인 김한호
담당교역자 정충
편집위원장 박경해
부위원장 이인호
사진 전경해
편집위원 임양숙, 정현숙, 김지원, 이예림

주소 (24353)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68-6
TEL 033)252-5959 **FAX** 033)241-1999
홈페이지 http://chdongbu.or.kr

춘천동부교회
Chuncheon Dongbu Presbyterian Church